조령/새재(역사성2,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0)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과 경상도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던 고개.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과 경상북도 문경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울과 동래(부산)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로였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다. 조령은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이 있으며, 이들 관문과 성벽은 1708년(숙종 34)에 축조되었다. 이 중 제3관문을 지나면 경상북도이다. 추풍령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한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으나, 지금은 관광로가 되었다.
조령의 옛 명칭인 초재[草岾]는 『고려사(高麗史)』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등에 기록되어 있다. 초재란 '풀고개'란 뜻으로, 풀이 무성한 계곡을 지나는 고갯길이기 때문으로 이렇게 불렸다. '새재'라는 명칭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는데, 구로(계립령)에 대한 새로 난 길이란 의미이다. 일반 서민 대중은 '초재'를 새로 난 고갯길이란 뜻에서 '새재'라고 불렀고, 이 '새[新]'는 '새[鳥]'와 음이 같아 '새재'를 잘못 의역하여 '조령(鳥嶺)'이라고 한자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시작된 1350년(충정왕 2)부터 조운이 부활되는 1390년(공양왕 2)까지 40여 년간 왜구의 약탈을 피해 영남 지방의 세곡은 육로로 운송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 수도와 영남 사이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길로 가장 험준한 길인 초재가 개척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중요성이 더해져 세미(稅米)의 운송뿐만 아니라 일본 사절의 왕래 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로가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서울 방어의 전초처로서 군사적 요충지였고, 숙종 때는 축성을 하여 지킴으로써 중요성을 더하였다. 고려 말부터 경상도의 세미 운송로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조령은 1792년(영조 36) 이후 중요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792년

(정조 16) 이후부터 경상도의 대동전(大同錢)을 서울로 육운하면서 중요성이 더욱 감소하였다. 일본 사절도 1811년(순조 11)을 마지막으로 끊어지게 되었고, 대일 공무역도 중단되었다. 또한 왜관을 중심으로 한 사무역도 1747년(영조 23) 이후 부연무역(赴燕貿易)을 엄금함에 따라 중·일 교역은 나가사키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되어, 무역상품의 유통로로서 지녔던 기능도 상실하였다. 영조 이후 평화가 계속되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도 점차 상실해갔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던 경상도 선비도 대폭 줄어들어 일반인의 통행도 줄어들었다. 더욱이 조령은 1904년 경부선 철도가 준공되어 그 전에 조령로가 했던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더욱 쇠퇴하였다.



문경읍에서 국도 3호선을 따라 서쪽으로 약 2㎞를 가면 진안이다. 여기서 국도 3호선은 서쪽으로 가고 조령은 북쪽에 위치한다. 진안에서 4㎞를 가면 횡성이 길을 막고 문루가 나타나는데, 이 성은 『문경현읍지』에 의하면 초곡성(草谷城)이고 문루가 주흘관(主屹關)이다. 이 주흘관을 조령 제1관문이라 부른다. 주흘관에서 1.5㎞ 북쪽에 전조령원지(傳鳥嶺院址)가 있다. 여기서 약 1.5㎞ 북쪽에 또 하나의 관문이 나타나는데, 이 성이 『문경현읍지』에 기록된 중성(中城)이며 문은 조곡관(鳥谷關)이다. 흔히 조령 제2관문이라 한다. 조동문에서 약 2㎞ 북쪽에 동화원지(桐華院址)가 있으며, 여기서 북쪽으로 약 1㎞를 가면 영상(嶺上)에 도달하여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된다. 여기에 성을 쌓고 문루를 세워 조령관(鳥嶺關)이라 하며 흔히 조령 제3관문이라 한다. 조령관에서 서북 2㎞ 지점 옛 고사리면 소재지에 신혜원(新惠院)이 있고, 신혜원의 이름을 따서 신혜원마을이라 부르는데,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신풍리의 한 마을이다. 신혜원에서 서북으로 약 1㎞ 가면 이화령을 넘어 충주로 가는 국도 3호선과 만나는 소조령(小鳥嶺)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의 조령은 일반적으로 문경 제1관문에서 소조령까지 약 10㎞의 고갯길을 말한다.

충주는 조령의 북쪽에 위치하여 조령을 넘는 사람과 물자가 이곳에 모여 서울과 호서 지방 여

러 곳으로 퍼져나갔다. 반대로 서울과 호서 지방 등의 여러 곳에서 충주에 모여 조령을 넘어 영남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경상도의 세곡은 조령을 넘어 충주 가흥창에 모여 서울로 운송되었다. 이렇게 충주는 조령을 넘어 서울과 영남으로 왕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도시였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충주를 지키지 못하면 한강을 연한 수백 리가 모두 적의 공격을 받게 되므로, 충주를 보존하려면 조령을 굳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다. 조령의 험준함을 막지 못하면 충주 또한 지킬 수 없다면서, 조령을 지키고 충주를 보존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따라서 충주에는 조령로가 여러 면에서 역할이 증대되던 조선 전기에 충청도 감영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조령과 추풍령 사이에 있고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관방중지로서 무신 김명윤을 충주목사로 삼아 군병을 조련하게 하였다. 정유재란 때에는 이시발(李時發)이 영(營)을 설치하여 죽령과 조령의 방어를 담당했고, 인조 때에도 이러한 시각에는 변함이 없어 검토관(檢討官) 유철(兪橃)은 “조령의 형세는 실로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천험의 요새지입니다. 충주는 조령 아래에 있고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병영을 옮겨 설치한다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현종 때 이완(李浣)은 조령에 영진(營鎭)을 설치하고 산성을 쌓아 충주의 군졸을 남한산성에서 떼어내어 조령을 지키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현종 대의 이러한 이완의 주장은 1708년(숙종 34)에 조령산성의 축조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조 이후 조령로가 중요성을 점차 잃어가면서 충주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소도시로 전락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충주문화대전)










괴산
휴암림매표소
제3관문
(조령관)
동화원터
제3관문
휴게소
조령산
자연휴양림
책바위
장원급제길
수옥리
색시폭포
괴 산 군
문경새재
도립공원
조곡
약수
제2관문(조곡관)
상초리
제2관문
휴게소
충청북도
경상북도
용추폭포
교귀정
조령원터
타임
캡슐
광장
여궁폭포
용시교
KBS세트장
조령산
(1025m)
문 경 시
제1관문(주흘관)
하초리
각서리
자연생태
학습장
①(구매표소)
옛길박물관
오미자체험관
공원관리사무소
문경관광호텔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주차장
문경읍
0
500
1km

이화현/이화령(역사성4,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0)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과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사이에 있는 고개.
고개가 가파르고 험하여 산짐승의 피해가 많으므로 전에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넘어갔다하여 이유릿재라 하였다. 그 후에 고개 주위에 배나무가 많아서 이화령으로 불리게 됐다.
이화령의 높이는 548m이고, 소백산맥의 조령산(鳥嶺山, 1,017m)과 갈미봉(葛味峰, 783m)과의 안부(鞍部)에 위치한다. 동쪽사면은 조령천(鳥嶺川)의 곡구(谷口)인 진안리에서 서쪽으로 분기하는 하곡과 통하고, 서쪽사면은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達川)으로 흐르는 연풍천(延豊川)의 하곡으로 이어진다.
도로도 위에 언급된 계곡을 따라 개통되었으나, 동편의 진안리에서 이화령 고개까지는 갈미봉의 산록을 따라 올라가고, 서편은 행촌리까지 '잣밭등'의 남쪽을 따라 내려간다. 고개 아래 연풍은 영하취락(嶺下聚落)이다. 옛날의 국도는 새재(조령(鳥嶺))로 통하였으나, 새재는 몹시 높고 산로(山路)가 험하므로 신국도 3호선은 이화령을 통하게 되어 연풍은 이화령에 교통로가 열린 뒤에 발달한 신흥취락이다.
연풍에서 하곡을 따라 올라가 원풍리를 거쳐 분수령에 이르면 동쪽은 새재마루의 조령 제3관문이고, 서쪽은 소조령(小鳥嶺)이다. 소조령을 넘으면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水安堡)에 이른다. 이와 같이 이화령은 충청북도의 충주권과 경상북도 북부의 점촌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화령의 개통으로 북쪽의 문경 조령 관문은 제1·2·3 관문과 주변의 성곽 등을 1966년 사적으로 지정하고 크게 보수, 축조하여 도립공원으로 정비하였다.

조령의 통과는 중초리에서 통제되고 관광객이나 등산로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이화령은 국도 제3호가 통과하여 주변지역에서 산출되는 특용작물의 수송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리하여 옛 조령에 이어 이화령은 새로운 교통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 3호선은 도로가 구불구불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3번 국도가 4차로로 확장되면서 이화령 터널이 뚫렸다. 그 뒤 이화령 터널 옆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하행선 터널이 추가로 관통됨으로써 모두 3개의 터널이 있게 됐고, 옛 이화령 포장도로까지 합쳐 10개의 차로의 도로들이 나란히 있는 실정이다. 이화령 터널을 건설할 당시 예상한 이용률보다 훨씬 적어서 문제가 되었고, 2007년 건설교통부가 '이화령 터널'을 인수하여 2007년 8월 1일 터널 통행료가 폐지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충주호
탄금대
포암산
(962m)
탄항산
(856m)
중부내륙
고속도로
문경새재
제3관문
제2관문
제1관문
하늘재
이화령
이화령터널
주흘산
(1106m)
희양산
(999m)
단산(956m)
문경새재터널
구미·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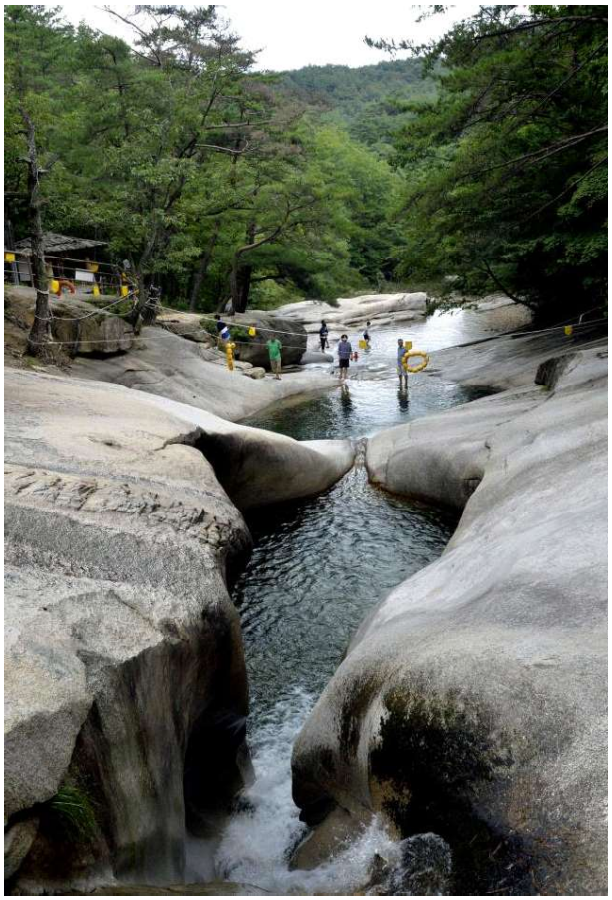
22.

대야산(역사성1, 인지도6, 접근성6, 연결성10)



대야산(大耶山)은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백두대간의 산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경계에 있다.
대하산·대화산·대산·상대산 등으로도 불렸고, 1789년에 발행된 《문경현지》는 대야산으로 적고 있다. 용추계곡의 양쪽 옆 바위에는 신라시대 최치원이 쓴 세심대·활청담·옥하대·영차석 등의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위키백과)






N
S
707m
불란치개
백
문
경
두
촛대재
촛대봉
668m
622m
503m
가
완 장 리
922
대야산 주차장
벌바위
돌미당식당
가마소
무당소
대야산
931m
(중대봉 갈림길)
919m
청
괘
산
군
상
버섯
(삿갓)바위
농바위
전망대
대문바위
코끼리바위
북
거북바위
밀재
경
대
북
월영대
월영대
삼거리
망속대
용추폭포
대골산장
은
읍
두리봉
560m
473m
482m
471m
떡바위
다래골
피아골
용추골
계곡
대골
산행로
능선
물길
도로
임도
샘터

화산/청화산(역사성1,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0)



청화산(靑華山, 970m)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 문경시 농암면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등 3개 시군의 경계를 이루며 그 중앙에 우뚝 솟아있다.
충북과 경북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 상의 한 봉우리인 청화산은 멀리 소백산으로부터 하설산 , 포암산, 주흘산, 조령산, 백화산, 희양산, 대야산등의 어깨를 타고 조항산까지 이어져 온 백두대간을 서남쪽 속리산으로 힘차게 밀어 붙어주고 있다.
청화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의상저수지를 거쳐야 하는데 청화산과 주변의 산 그림자가 저수지 수면위에 아름답게 펼쳐져 산을 오르기 전에 산과 어우러진 자연의 경관에 감탄을 하게 된다. 특히 깊은 산속에서 흘러나와 모여진 물은 맑고 깨끗하여 여름철에도 발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차가와 등산에 지친 산악인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이곳 저수지는 마을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깨끗하며 빙어 등 각종 어류가 풍부하여 저수지에서 강태공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청화산에는 산죽군락 지역과 소나무가 많아 겨울철에도 푸르게 보이는 산으로 아마도 청화산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른다.
청화산으로 가는 길은 조항산과 같다. 청주에서 미원과 화양동을 경유하는 화북행 버스에 오르면 된다. 또한 등산기점도 조항산과 같은 경북땅 화북면 입석리 옥양동이다. 여기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의상골 방향으로 들어서서 잠시 주변 경치를 감상하

면서 걷다보면 송면 저수지라고도 하는 의상저수지에 도착하게 된다.
등산기점인 옥양동에서 의상저수지로 가는 길에는 수령이 600여년이 넘으며 둘레 5미터, 높이 15미터에 가지를 드리운 폭이 20여 미터가 넘는 나무밑둥에서 부터 가지 끝까지 뒤틀어져 드리워진 용송이라는 소나무가 서있는데 이 노송은 천연기념물 제2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용송을 지나 10분정도 더 들어가면 의상저수지가 나온다.



넓고 시원스런 의상저수지를 끝까지 돌아가면 벌채를 위해 닦아놓은 임도가 있으며 임도를 따라 40분가량 올라가면 갓바윗재로 오르는 길이 나온다. 길옆에서 산 능선을 바라보면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누런버섯 모양의 바위가 보이는데 그 곳이 갓바윗재이다.
갓바윗재까지 가는 동안 소나무 숲과 산죽군락 등을 만나게 되는데 넓게 펼쳐진 산준군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쾌함을 느끼게 하며 바람에 의해 들려오는 산죽군락의 흔들림 소리는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준다. 갓바윗재 봉우리까지는 30-40분가량 걸리는데 이곳은 아직 등산로가 뚜렷하지 않아 주의해서 올라가야 한다. 갓바윗재에 오르게 되면 시원한 조망이 펼쳐 지는데 북쪽으로 멀리 조항산이 보이고 남쪽능선 길을 따라 약 1km거리에 이르면 기암바위지대에 오르게 된다. 이곳 정상에서 남쪽으로는 청화산이, 서쪽으로는 송면 저수지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조항산과 둔덕산이 바라보인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휘어 도는 능선으로 걸음을 옮겨 30여분 거리에 이르면 871m의 봉에 닿는다. 이곳에서 가깝게 보이는 청화산은 아직도 멀다. 왜냐하면 생각과 달리 오르내리는 바위지대와 세미클라이밍지대 그리고 바위지대를 좌우로 휘어 도는 지점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산악인들의 발길이 뜸했기 때문에 빽빽한 잡목수림을 헤쳐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곳을 지나 40분가량 오르면 청화산 정상이다. 정상에서의 조망은 조금은 실망스럽다. 주변이 산림에 가려있어 탁 트인 전망은 경북방향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정상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함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정상 같지 않은 곳에 청화산이라는 표시목이 없다면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상이다. 정상 길에서의 하산 길은 송면 저수지 방향인 서북방향의 능선을 이용한다. 서북능선을 내려서는 길 맞은편으로 백악산을 비롯하여 화양동계곡을 감싼 도명산과 그리고 송면 일원의 아름다운 계곡이 한눈에 들어와 산행의 피로를 느낄 사이가 없다.(괴산군청)





속리산/속리산(천왕봉)(역사성8, 인지도5, 접근성6, 연결성10)

[정의]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의 경계에 있는 산.
[개설] 속리산(俗離山)은 경상북도 상주시 북서쪽에서 화북면 상오리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걸쳐 있는 높이 1,058.4m의 산이다. 백두대간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어 내려오는 소백산맥 줄기의 중앙에 해당한다. 남북으로는 한반도의 척추 역할을 하며, 천왕봉에서 한남금북정맥이 분기한다.
[명칭 유래] 속리산은 '속세[俗]'를 '떠난[離]' 산이란 뜻이다. 속리산 법주사(法住寺)가 창건된 지 233년이 지난 784년(신라 선덕왕 5) 승려 진표가 김제 금산사로부터 오는 도중에 들에서 밭을 갈던 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진표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짐승까지 저러한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참으로 존귀한 분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머리를 깎고 진표를 따라 입산수도하는 이가 많아졌다. 이때부터 '속세를 떠난다'는 뜻으로 속리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순우리말로서 속리(俗離)는 '수리[술]'로 읽히며 '크다', '힘세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수리뫼'는 '큰산[大山]'이라고 한다.
[자연환경] 속리산은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비로봉과 입석대, 신선대, 문장대로 이어지고, 남동쪽으로는 형제봉과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중심 산이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 유천층군의 산성 화산암과 불국사 관입암류의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왕봉의 주변은 화산암질의 암석돔과 급애, 돌이 탑처럼 쌓여 있는 토르(tor) 등이 나타나고, 비로봉에서 문장대 구간에는 화강암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암봉과 급애, 수직 절리, 토르 등의 다양한 암석 미지형이 전시장을 이룬다. 속리산의 하천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분수령을 이룬다. 동쪽의 상주 방향으로는 입석천과 용유천이 발원하여 흐르다가 용유리에서 합류하여 영강이 되어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하천 계곡에는 오송폭포와 장각폭포, 소 등이 발달하였다. 식생은 소나무와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피나무 등 각종 낙엽활엽수가 울창하게 섞여 혼합림을 형성한다.
[현황] 속리산 정상 천왕봉에서 북쪽으로는 비로봉과 입석대·신선대·문장대 등 이름난 암석 지형이 절경을 이룬다. 용유천에는 장각계곡과 장각폭포 및 용유계곡이 있고, 입석천에는 오송폭포가 비경을 이룬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산세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동쪽 기슭에는 십승지의 하나인 상주 우복동과 성불사, 견훤산성(甄萱山城)[경상북도 기념물], 상주 상오리 칠층석탑(尙州 上吾里 七層石塔)[보물]이 있어 더욱 유명하다. 속리산국립공원은 탐방 코스가 네 지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주의 화북 지구 등산로는 화북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문장대, 신선대, 입석대, 비로봉, 천왕봉, 장각마을, 칠층석탑, 장각폭포'로 내려오는 코스가 대표적이다. 문장대만을 산행할 경우에는 '화북탐방지원센터, 문장대, 화북탐방지원센터' 코스를 이용하고, 천왕봉만을 산행할 경우에는 상오리 '장각폭포, 장각마을, 천왕봉, 장각마을, 장각폭포' 코스를 이용한다. 야영 및 휴양 시설로는 문장대야영장, 문장대오토캠핑장, 상주학생수련원, 맥문동솔숲 등이 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령(재)(역사성1, 인지도5, 접근성4, 연결성8)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해발 320m. 북쪽으로 백두대간 봉황산(740m), 남쪽으로 윤지미산(540m) 사이에 위치하며, 낙동강과 금강의 분수령을 이룬다. 고개 이름에 불 화자를 써서 화령(火嶺)이라 쓰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전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상주지명총람』에도 화령의 지명 유래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50년 화령장 전투에서 국국 17연대가 거둔 대승은 북한 15사단을 저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서면 신봉리 산2-8에는 화령장지구전적비가, 격전 현장인 화서면 하송리에는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한편 화령(化寧)은 경상북도 상주시 서부 지역(화서면, 화동면, 화남면, 화북면 등)의 옛 지명이다. 본래 신라의 답달비군(荅達匕郡)이었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화령군으로 개칭되었다. 1018년(현종 9년)에 상주의 영현이 되었다. 중모 지역(모동면, 모서면)과 합쳐서 중화(中化)라고도 한다. 실제로 이들 6개 면에 있는 농협은 중화농협이다.

경북 상주시 화동·화서·화남·화북 4개 면은 본래 조선시대까지 남아있던 화령현(化寧縣)에서, 모동·모서면은 중모현(中哞縣)에서 유래한다. 두 지역을 아울러 중화 6개면이라고 하는데, 대개 백두대간을 경계로 도와 도가 나뉘지만, 이 경상도 6개 고을은 대간 동쪽으로 넘어와 있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이 백두대간 화령으로는 청주로 이어지는 25번 국도(영남제일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나란히 30번 당진영덕고속도로(상주-청주)가 달리고 있다.


화령재
해발 320m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비재
화남면 동관리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봉황산
49
화령
25
25
현위치
윤지미산
화동면 판곡리
신의터재
화동면 어산리
화동면사무소
2.7Km